“세계 최초 ‘나이트 아쿠아리움’ 준비 중”

비즈 & 피플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고정락 관장

서울 잠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이하 롯데 아쿠아리움)은 650종 5만5000여 마리의 해양생물을 보유한 대형 수족관이다. 2014년 10월 문을 연 롯데 아쿠아리움은 개장 2년여 만에 연간 140만 명 가까이 찾는 명소가 됐다. 단기간에 인기 관광지로 자리잡은 것도 대단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수족관을 일회성 볼거리가 아닌 해양 생태계를 배우고 연구하는 ‘환경 박물관’으로 인식을 재정립한 노력도 평가받고 있다. 롯데 아쿠아리움은 현재 국내 최다의 해양생물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2011년 개관 준비 때부터 지금까지 아쿠아리움을 책임지고 있는 고정락(50) 관장이 아니었다면 어려웠다는 것이 중론이다. 여름방학 시즌 준비로 한창 바쁜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의 고정락 관장을 만났다.

“수중생물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국내 첫 나이트 아쿠아리움 등을 통해 바다를 이해하고 생물이 성장하는 시간을 느끼는 공간을 만들려 애쓰고 있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의 상징인 메인 수조 앞에 선 고정락 관장. 그는 수족관을 단순한 구경거리로 여기던 것에서 이제는 바다를 배우고 공부하는 연구·학술 공간으로 인식이 바뀌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있다.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밤바다처럼 오후 6시부터 조명 어둡게
생물 라이프사이클에 맞게 환경 조성
시즌별 6~8개씩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아무래도 아쿠아리움은 여름방학이 한창 바쁜 때일 것 같다.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난해부터 실시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지역사회 학교를 찾아가 바다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교육하는데, 작은 수조를 선물해 생물을 키우며 학습하도록 돕고 있다. 30명 정원 1개반으로 운영하는데, 경쟁률이 5대1에 달한다. 생물전시는 세계 최초로 ‘나이트 아쿠아리움’을 시도한다. 생물복지 차원에서 라이프 사이클에 맞게 오후 6시부터 조명을 어둡게 해 실제 밤바다처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방문객에게 플래시를 대여해 자연스런 밤바다 생태계를 보여줄 것이다.”

- 2014년 10월 문을 열어 개관 3년차다. 현재 하루 평균 방문객은 어떻게 되나.

“주중에는 하루 2000명, 주말에는 5000~6000명 수준이다. 연간으로 따지면 140만명 가까이 된다. 현재 아쿠아리움은 안정기에 접어든 단계다. 서식 환경이나 수질에서 초기에 변동이 심했지만 많이 안정됐다. 이를 수치로 보여주는 것이 폐사율이다. 아쿠아리움 초기에는 대략 40%에 달하는데, 안정기에 들어서면 10~20% 수준이 된다. 우리는 지난해 11%였고, 올해는 현재까지 7% 정도이다.”

- 개관 이후 3년여를 지내오는 동안 가장 어려웠거나 힘든 고비가 있었다면.

“개관 초 누수사고와 수족관에 대한 인식 부족, 오해로 고민이 컸다. 수족관을 단순히 엔터테인먼트 시설로 보는 시각부터 벨루가 폐사 때 동물보호단체의 항의 등 풀어야할 과제가 많았다. 이제는 차수문, 누수감지 센서 등 안전장비 관리 보수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이 됐고, 생물폐사의 갈등도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수족관이 아니면 어디서 해양생물을 연구할 수 있느냐’는 인식공유를 하고 있다.”

- 초기에는 벨루가를 떠올렸지만, 지금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더 인상적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총 36개로 이를 시즌별로 6~8개 운영한다. 그때그때 사회적, 환경적 요인에 맞춰 선택적으로 운영한다. 다른 곳과 달리 교육 파트를 따로 떼어 해양생물센터에서 운영한다.”

- 롯데 아쿠아리움 전에는 수족관은 단순히 진기한 해양생물을 구경하러 가는 곳이었다. 지금은 바다를 배우고 연구하는 곳이라는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족관 역할에서 바다를 연구하는 것은 중요한 기능이다. 처음 오픈했을 때 수중 생물의 크기가 작아 보기 어렵다는 관람객의 불만이 많았다. 다른 곳은 전시를 위해 큰 개체 위주로 도입한다. 보기는 멋있지만 폐사율이 높아진다. 우리는 처음에 작은 생명체를 도입해 수조 생태계에 적응하면서 커가는 방식을 선택했다. 아쿠아리움도 동물원, 박물관처럼 자연의 시간을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을 논문으로 발표해 호평을 받았다. 지금은 한국어류학회가 학술대회를 개최할 때 테스트 베드로 수족관을 제공하고 있다.”

- 해외 아쿠아리움은 하고 있는데, 우리는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시설의 해외 의존도가 높다. 물고기를 관리하는 탱크 안에 환경을 만들어주는 각종 장치나 시설 국산화가 안됐다. 만드는 것부터 운영, 리모델링, 자재까지 다 해외에서 가져와야 한다. 아직 그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 일본만 해도 수족관협회에 시설이나 장비를 제작하는 업체가 모인 시스템과 하드웨어 분과가 있다.”

- 1월 발족한 한국수족관발전협회 초대 회장을 맡았다. 구상하는 계획이나 사업이 있다면.

“기존 패러다임을 바꿔 새로운 수족관의 길을 찾아보는 것이 목표다. 생물 연구는 가장 기본적인 당연한 역할이고, 앞으로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관람객과 공유하고 그것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한다. 특히 생물 관리에 대한 모든 자료를 빅데이터로 만들고, 누구든지 그 자료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그렇게 하면 생물에 대한 접근방식이 달라진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 고정락 관장
▲1967년생 ▲부경대학교 해양생물학 박사 ▲미국 텍사스주립대 분자계통학 포스트 닥터 ▲1997년~2010년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 연구관 ▲2011년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관장 부임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KAZA) 부회장 ▲건국대 수의과대학 겸임교수 ▲한국수족관발전협회 회장

국민 52% “여름휴가 떠난다”

대부분 국내여행…목적지 강원도 1위

올 여름 우리나라 국민 두 사람 중 한 명은 여름휴가를 계획하고 있고, 여행지는 대부분 국내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국민 12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하계휴가 실태조사’결과 52.1%가 여름휴가를 계획하고 있고, 이 가운데 83.6%는 국내 여행을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국내여행 예상 휴가비는 지난해보다 2000원 늘어난 평균 25만6000원이었다.

휴가 시기는 올해도 7월 마지막 주(7월24~31일)와 8월 첫째 주(8월1~6일)에 전체의 62.5% 가량이 몰렸다. 휴가 기간은 2박3일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1박2일, 3박4일 순이었다. 평균여행기간은 2.9일이었다. 국내여행 희망지로는 강원도(33.2%), 경상남도(14.6%), 전라남도(9.8%), 경기도(8.9%), 경상북도(7.4%) 순이었다.

국내 여름휴가 여행 시 선호 교통수단은 자가용(84.0%)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숙박시설은 펜션(36.0%)을 선호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제주 샤인빌 럭셔리 리조트 전경

대명그룹, 제주 샤인빌 리조트 인수

대명그룹이 드라마 ‘올인’ ‘태양을 삼켜라’의 촬영지였던 제주 서귀포시 샤인빌 럭셔리 리조트(이하 샤인빌)을 인수한다. 대명코퍼레이션은 6월 천안 테딘리조트를 인수한데 이어 최근 40억원에 샤인빌 인수를 결정했다. 샤인빌은 2002년 12월에 개관해 별장 객실과 호텔형 객실 등 414실을 갖고 있다. 대명코퍼레이션은 45% 수준인 샤인빌 투숙률을 대명리조트 제주(함덕)와 같은 97%로 끌어올리고, 운영수익과 분양이익 등을 통해 연간 180억 내외의 영업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대명코퍼레이션은 제조·유통 중심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리조트 진출을 통한 사업다각화에 주력하고 있다. 대명코퍼레이션 측은 “향후 국내 리조트 추가 진출과 베트남 등 해외 리조트 사업 확장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피플

인사

신한카드 〈신규선임〉 ▽BU(Business Unit)장 △글로벌사업BU 천상영 ▽부서장 △미래경영팀 한윤식 △서울1CRM센터 이영훈 △대전2고객센터 이승진 △서울발급지원센터 오세헌 〈이동〉 ▽BU장 △신성장BU 안중선 ▽부서장 △영업기획팀 박창훈 △회원기획팀 이병환 △리스렌탈팀 민만수 △올댓서비스팀 최선원 △라이프케어팀 박춘선 △글로벌영업추진팀 서해훈 △디지털마케팅팀 박창범 △BD분석팀 유태현 △BD마케팅팀 정승은 △인재개발팀 김충자 △신한WAY추진팀 김영일 △직원만족팀 김기철 △채권기획팀 김대영 △고객보호팀 진미경 △부산지점 이현상 △수원지점 김용

이화여대 △총무처장 정문종 △여성지도력개발센터 소장 김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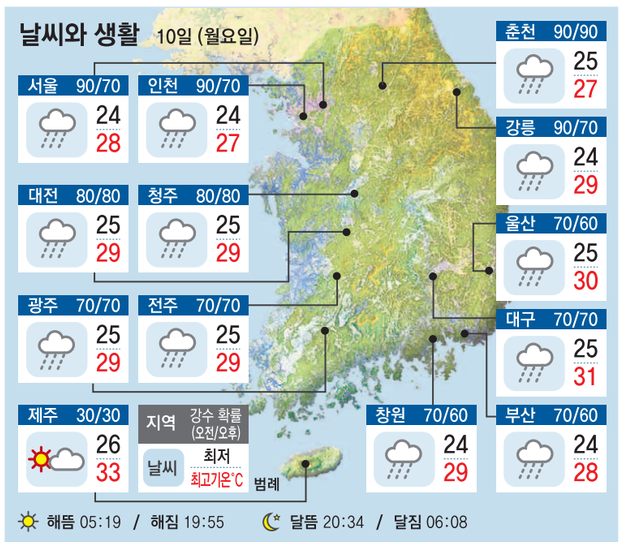
부고

◇정영일 프로야구 SK와이번스 투수 외조부상=8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621-2 만평장례식장 202호, 발인 10일 오전 9시 062-611-0000

◇김숙현 씨 별세·송경모 전 경찰공무원 경진(사업) 씨 영한 쌍용자동차 부사장 경수 씨 진아 씨 모친상·박창배 한국증권거래소 이사장 장모상=7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0일 오전 8시 02-2258-5940

뉴스디자인 | 이수진 기자

날씨와 생활 10일 (월요일)



해뜸 05:19 / 해짐 19:55 달뜸 20:34 / 달짐 06:08

산 날씨		바다 날씨		미세 먼지	
북한산	24/28	인천송도	24/29	서울	46 보통
설악산	23/28	제부도	25/28	부산	40 보통
오대산	23/27	경포대	24/29	대구	17 좋음
계룡산	24/29	속초	23/27	인천	33 보통
속리산	24/29	대천	25/28	광주	6 좋음
소백산	24/29	안면도 꽃지	24/28	대전	20 좋음
팔공산	25/31	변산반도	25/29	울산	42 보통
지리산	24/29	거문도	25/27	경기	28 좋음
덕유산	24/29	칠포	26/33	강원	14 좋음
내장산	25/29	해운대	24/27	충북	10 좋음
한라산	23/27	제주도	25/28	경남	33 보통

주간 날씨 (최저/최고기온)

11일(화) 서울경기 25/31 영동 24/33 충청 24/31 호남 24/31 영남 23/28 제주 26/32
12일(수) 서울경기 24/31 영동 24/34 충청 24/32 호남 25/31 영남 24/29 제주 26/32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7월 10일(월요일) 음력:윤 5월 17일

쥐 행운색:흰색	오늘의 마음:여명, 일출 직전. 운세: 자칫 인간관계에서의 트러블로 인해 곤고한 지경에 놓여 그로인한 심리적 갈등과 마찰로 의욕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주변의 변화로 인한 이득이 있는 날이다. 길방:서
소 행운색:흰색	오늘의 마음:무지개, 소망 많다. 운세: 앞으로 전진하고 싶은데 주변에서 좀 더 기다리라며 나를 잡는다. 강인한 추진력으로 나아가야 한다. 노력과 정성과 활동이 뒤따라야 이루어진다. 길방:서
호랑이 행운색:적색	오늘의 마음:노을, 허무한 마음. 운세: 자신의 콤플렉스에 빠지기 쉬우며 능력의 한계로 인한 피로감이 쌓이기 쉬울 때이다. 그러나 이는 도약을 위한 한 과정이다. 주색을 가까이하지 말라. 길방:남
토끼 행운색:검정	오늘의 마음:맑음, 평화롭다. 운세: 오늘은 공연히 분주해지고 심란해지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기 어렵다. 성급함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면서 건강에 신경을 기울이며 차분함을 도모하기 바란다. 길방:북
용 행운색:흰색	오늘의 마음:해·번개, 갈등. 운세: 마음속에 번민이 따르니 변화 상황에서 자제하여 무난한 인간관계를 유지함이 필요하다. 오늘은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 집수리, 이사, 잔치, 혼인도 피하라. 길방:서
뱀 행운색:청색	오늘의 마음:싸늘, 소심한 날. 운세: 오늘은 뭔가 시작을 하려는데 누군가가 나의 발목을 잡는다. 기분에 치우치지 말고 침착하게 밀고 나아가라. 닭띠나 돼지띠와 함께하면 돌파구를 찾게 된다. 길방:동
말 행운색:청색	오늘의 마음:쾌청, 상쾌. 운세: 확장이나 변화를 시도하려면 과감한 행동이 따라야 하며 너무 주위를 의식할 필요는 없다. 기초와 경륜이 탁월하여 예술과 문학 등의 분야에서 빛을 발하는 날이다. 길방:동
양 행운색:흰색	오늘의 마음:구름, 자유 추구. 운세: 오늘은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항상 자신의 주장보다는 주위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혜롭게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길방:서
원숭이 행운색:노랑	오늘의 마음:여우비, 겨우 해결. 운세: 의욕이 너무 앞서거나 물질적인 면을 강하게 추구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태에서 안정을 찾도록 하라. 독자적인 행동보다는 인간적 유대관계에 마음을 쓰라. 길방:중앙
닭 행운색:노랑	오늘의 마음:먹구름, 가시밭길. 운세: 매사에 많은 애로가 따른다. 성급하게 나서지 말고 돌파구를 찾도록 노력하라. 하지만 오늘은 그동안의 노력과 정성이 빛을 보아 진급 등 보상이 있는 날이다. 길방:중앙
개 행운색:흰색	오늘의 마음:파도, 힘이 넘친다. 운세: 보다 긍정적이고 진취적으로 생각하여 현 위치에서 좀 더 높은 자리로 도약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현재의 위기는 극복 되겠다. 소극적으로 행동하라. 길방:서
돼지 행운색:흰색	오늘의 마음:쾌청, 상쾌. 운세: 잔잔한 바다위에 돛을 높이 올리고 이제 막 항해를 시작하려는 형상이다. 방해물은 하나도 없고 희망과 정열을 가지고 힘찬 출발을 하는 기운이다. 길방:서
재운 코너	**금주의 로또 행운번호: 1,3,6,8,(5,0)** **금일 복권, 주식, 부동산 매입 행운의 띠: 토끼,양,돼지** **금일 주식, 부동산 매도 행운의 띠: 쥐,용,원숭이**

강주현의 퍼즐월드

1		5		8		9		3
			9		5			
3		9		1		6		5
	7						8	
5		8				2		4
	1						9	
7		4		5		8		1
			7		1			
9		1		6		7		2

	4			6			3	
9			3		4			5
		3		8		2		
	1		4		3		9	
2		6				1		4
	8		1		6		5	
		4		9		7		
6			7		1			3
	7			3			2	

1~9까지의 숫자를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 스도쿠정답 (모바일) WWW.경품광고퀴즈.kr (모바일) WWW.매직스도쿠.kr

2	5	7	8	9	6	4	3	1
9	3	1	4	6	8	7	5	2
8	5	6	7	2	1	3	4	9
7	2	4	3	5	9	8	6	1
6	1	2	8	4	3	5	9	7
5	9	8	1	7	6	2	3	4
4	7	3	5	9	2	1	8	6
3	8	9	2	1	4	6	7	5
1	4	5	6	8	7	9	2	3

8	7	1	6	3	5	4	2	9
6	9	2	7	4	1	5	8	3
3	5	4	2	9	8	7	1	6
4	8	9	1	7	6	3	5	2
2	3	6	8	5	9	1	7	4
7	1	5	4	2	3	6	9	8
5	6	3	9	8	7	2	4	1
9	2	7	3	1	4	8	6	5
1	4	8	5	6	2	9	3	7

한국ABC 인증 스포츠신문 발행부수 1위
스포츠동아는 성인광고를 싣지 않습니다

스포츠동아
광고문의 02 2020 1010
구독신청 1588 2020
FAX 02 2020 1015

발행인 송영언
편집인 이성춘
편집국장 연제호
광고국장 이승욱
인쇄 동아일보사

대표전화 02 2020 0114
편집부 02 2020 1032
스포츠1부 02 2020 1041
스포츠2부 02 2020 1059
엔터테인먼트부 02 2020 1065
경제부 02 2020 1062
뉴미디어전략팀 02 2020 1027
사진부 02 2020 1069
기사 의견 제보 및 독자 투고 02 2020 1040
sol@donga.com

www.sportsdonga.com
(우)03187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